

<기자회견문>

KT의 민주노총 탈퇴공작은 반민주적, 반노동자적 폭거이며 전면 무효를 선언한다.

들어 한없이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우려하는 민중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권의 노동자 탄압은 비정규직법 개악과 쌍용차 정리해고 공권력투입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적대적 관계로 일관해 오고 있다. 보수언론의 민주적 노동조합 때리기도 그칠 줄 모르고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투쟁은 멈추지 않고 있으며 사회 분위기도 약자를 외면하는 부자정권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공작은 사회적 쟁점의 전면에서 주도하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진영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주고자 함이 분명하다.

KT노조는 지난 94년도, 30년에 걸친 어용의 굴레를 끊고 민주노조를 건설했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지속되어 온 정권과 자본의 억압에 맞서 YS정권에 의해 ‘국가전복세력’으로 매도되면서도 가열찬 투쟁으로 민주노조 운동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 왔다. 그러나 96년 이후 정권은 민주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온갖 탄압을 일삼아 왔으며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집행부 만들기에 서슴없이 개입해 왔다. 자주성을 상실한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과 사회적 연대를 외면하고 회사의 입장에 발맞추는 대변자로 전략해 왔다.

KT의 노조장악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 노동조합 선거, 각종 투표 등에서 현업 관리자들을 줄 세우고 문책하면서 완벽한 현장통제를 시도해 왔다. 정권과 자본은 노조의 무력화를 통해 통신공공성을 책임져 온 KT의 민영화와 이에 따른 대규모 구조조정 등을 자행해 왔다. 2009년도 1월, 이명박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던 이석채씨가 KT의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KT 노사관계의 불법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회장은 취임 직후 향후 5년간 인건비를 매년 1,000억씩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7월 6일 KT의 공중분해와 다름없는 망분리 분사를 공표하였으며 이는 KT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부의 반발과 연대를 단절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민주노총 탈퇴로 귀결된 것이다. 이회장은 고과연봉제가 도입된 올 임단협에서 65%의 찬성률로 전국 최하위였던 안산지사에 대한 즉각적인 문책인사는 현장에 공포감을 심어 주었다. KT노조의 자주적 단결권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정권과 자본의 주구로 전략한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는 무효임을 선언한다. 민주노조의 기풍을 기억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걱정하는 대다수 조합원들은 결코 이번 결정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혀둔다. KT노동조합은 민주노총 탈퇴결정으로 역사적 오류를 범하지 말 것이며, KT는 불법적 지배개입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KT자본 그리고 그 하수인인 KT노조는 민주노총 탈퇴결정을 즉각 취소하라!!

2009. 7. 13

KT민주노총 탈퇴공작 중단 촉구 기자회견 참가 조합원 일동(대표 조태욱 010-3310-5677)